

제 11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신규회원 1명)

2020년 8월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정치철학의 문제에 대한 고대적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고대의 정치철학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 생활의 목표는 덕성이며, 덕성에 가장 기여하는 질서는 귀족주의적 공화국 아니면 혼합정체 라는 합의다.

수학적 공리와 같이, 정치철학에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

그것은 “형상은 질료보다 존엄하다.” 이다.

덕성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세계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다양한 정치철학들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모든 근대 정치철학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를 공유한다는 이유에서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 원리는 소극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되는 것이 최상이다. 즉 고대적 구도를 비 현실적인 것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근대 정치철학에 생명을 불어넣은 적극적인 원리는 매우 다양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고대는 Polis, 근대는 Nation, State

근대 사상가들은 근대에는 고대와 같이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저자는 인간 사회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근데 정치철학의 시조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이다. 그는 정치철학 전체의 전통과 단절하려 노력했고 또한 실제로 단절했다. -중략- 그는 새로운 도덕의 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자신의 『플로렌스 역사Florentine Histories』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메디치 가의 코시모는 인간이란 주기도문을 손에 들고서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말은 코시모의 적들로 하여금 그를 조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저 세상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할 구실을 주었다.

당시에는 현세보다 내세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았다.
기독교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 분야에서 마키아벨리의 독창성은 그가 신성모독의 대가였다는 사실에 한정된다. 그가 범한 신성모독의 매력이나 우아함은 그것의 충격적인 성격보다는 덜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형상보다 질료가 존엄하다고 보았다.
도덕으로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없고 권력으로, 법으로만 통치해야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믿는 가치의 순서를 법과 제도로 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해결책일 뿐 지속될 수 없는 해결책이다.
인간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의식적으로 사회적 행동의 표준을 낮춘다. 그가 표준을 낮춘 것은 낮추어진 표준에 맞추어서 건설되는 구도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우연에 대한 의존 정도는 감소되고 우연성은 정복된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도덕의 기준이 높았고 엄격했다. 그러한 엄격한 도덕률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법률의 기준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사회적 행동의 표준인 도덕률을 낮춘다.

그에 따라 법률의 기준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가치로 따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법률로 대체되었다.
우연성은 정복되어갔고 대신 인간의 행위는 세세하게 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접근은 도덕이 실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비록 국가나 왕국의 일들에서 특히 무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있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대의명분이라 한다.
현대는 도덕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와는 별개로 도덕의 힘은 여전히 실존한다.

이러한 가정에 반(反)하여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덕성은 오직 사회 안에서만 실천될 수 있으며, 인간은 법률, 관습 등에 의해서 덕성에 습관화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인간들에 의해서 덕성에 길들도록 교육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 유명한 마키아벨리 주의자인 칼 마르크스Karl Marx를 인용한다면 교육자도 교육받아야 한다. 최초의 교육자, 즉 사회의 창설자는 덕성을 목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다. 로마의 창설자는 형제살해자였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Human design, 인간을 재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마제국 창시자는 형제살해자였다. 사회가 덕성을 만들 수 있다면
형제살해자가 만든 국가 로마의 덕성은 형제살해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덕성을 교육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다.

도덕은 도덕에 의해서 창조될 수 없는 맥락 내에서만 오직 가능하다. 왜냐하면 도덕이 자신을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이 가능한 맥락은 비도덕에 의해서 창조된다. 바로 모든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혁명적 토대에 기반 하듯이 도덕은 비도덕에, 정의는 불의에 기반한다.

도덕성은 공동선의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도덕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사실 사회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는 공동선을 모든 사회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들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이란 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 안정성 혹은 법에 의한 통치, 번영, 영광 혹은 제국 등이다.

도덕성은 공동선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명문화 된 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일종의 도덕재판이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믿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헌신 자체는 교육에 의존한다. 이것은 곧 애국심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만일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목적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인간은 거의 무한정하게 변형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에 따라 무한정하게 변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이라는 물리적인 세상 위에
스스로가 믿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명예욕의 최고 형태는 말 그대로 새로운 군주, 곧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를 발견하고 많은 세대의 인간들을 조형해 내는 전적으로 새로운 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나쁘지만, 명예욕으로 절제된다고 봤다.
사회는 그런 덕성속에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는가? -중략- 당신은 그것을 오직 불의를 통해서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품격의 형성이나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들이며, 위용을 갖춘 제도들이다.

마키아벨리 사상의 핵심이다.
제도를 통한 복수.
정의=복수

마키아벨리의 시대까지 고대의 전통은 심각한 변화를 겪어왔다. 사변적인 삶이란 수도원에 서나 그 근거지를 찾았으며, 도덕적 자질은 기독교적 자비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기독교적 자비를 통해서 동료 인간들 및 같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은 무한히 증가하였다.

현대사회의 복지나 타인에 대한 연민이 제도화된 것은
과거의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책임이 무한하게 증가하였다.

올바른 또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실현을 가능하게 - 확실하게가 아니라면 - 하기 위해서 또는 우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기준은 좀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도덕률을 더 낮추길 원했다. 그 도덕의 공백을 제도가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도덕을 규칙이나 법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회를 더 디자인하여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키아벨리 리가 해석한 바와 같은 로마적 공화정이념은 근대 정치사상의 가장 강력한 조류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으로 불리는 책을 썼으며, 홉스는 『시민에 관하여On The Citizen』로 불리는 책을 썼다.

홉스는 국가사회가 본질적으로 범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한 것이다.

정부가 일단 성립되면 폭력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다.

자연적인 인간(자기보존의 본능, 생존에 대한 두려움)

↓

사회 속 인간(사회에서의 답답함)

마키아벨리 정치적 교의의 핵심 축은 영광인 반면에 홉스의 정치적 교의의 핵심 축은 권력이다.

마키아벨의의 핵심은 명예욕, 영광이다.